광양시,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본격화

시,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소재전문과학관과 연계 추진
2025년 개관…민간자본 유치도

광양시가 최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1단계 공공사업의 주요시설인 소재전문과학관과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양소재전문과학관과 중앙근린공원 조감도.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역점사업인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에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1단계 공공사업의 주요시설인 광양소재(素材)전문과학관과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소재전문과학관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이차전지 등 각종 산업에 쓰이는 산업 재료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7000㎡로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관, 어린이체험관, 강당, 야외광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국비 200억원 등 400억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6월 개관할 계획이다.

280억원이 투입되는 통합주차장은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573대가 주차할 수 있다.

광양시는 내년 9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 말 준공할 계획이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황길동 구봉산 자락 60만3000㎡ 규모의 중앙근린공원에서 추진 중이다.

전체 면적의 82% 규모인 52만㎡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개발하고 8만㎡는 공공 개발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공공개발 사업을 위해 국비 229억원과 도비 155억원, 시비 897억원 등 1281억원을 확보했다.

광양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숲속 야영장과 상상 놀이터, 스포츠 클라이밍장, 소재전문과학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포스코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업체가 많아 소재전문과학관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5일 개장

어린이날 앞두고 조기 오픈
7월부터 모든 놀이시설 개장
주말·주중 구분 없이 운영

호남 최대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오는 5일부터 실내 워터파크와 실외 유아풀, 인피니티 풀을 개장한다.

디오션 워터파크에 따르면 휴장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 점검과 새단장을 마치고 개장 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손님을 맞는다.

디오션 측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작년과는 다르게 워터파크 운영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개장을 서둘렀으며 그동안 외출을 망설였던 가족, 연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오션 실내 워터파크에는 파도풀과 유수풀을 비롯해 튜브 슬라이드, 바디 슬라이드 등 10개의 풀과 슬라이드가 야외 못지않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 시설이 온수로 운영돼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따뜻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스파풀에서는 피로를 풀 수도 있다. 특히 실내와 실외에 유아풀을 따로 갖춰 있어 유아동반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문종훈 디오션 워터파크 홍보기획실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정박해 있던 디오션리조트가 드넓은 다도해로의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며 "바다 위에서 크루즈 여행을 만끽하는 것과 같은 특별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디오션 워터파크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름철이 본격화되는 7월부터 전면 개장하는 디오션 워터파크. 사진은 야외 물놀이시설. 〈디오션 워터파크 제공〉

구례 매천도서관 '지역문화 체감의 장' 자리매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공모 8년 연속 선정
강연·탐방 연계한 2개 프로그램 진행

구례 매천도서관 전경.

구례 매천도서관이 운영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인문학의 일상화·생활화를 위해 책·사람·현장이 만나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매천도서관은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구례읍의 옛 이름인 봉성시절 구례의 숨겨진 아름다운 유적을 탐험하고 답사하는 내용이다. 오는 22일부터 10월30일까지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6회 진행한다.

두번째 프로그램은 공유자원인 지리산, 섬진강의 생태를 주제로 한 모니터링과 아카이브다. '지리산은 살아있다-온몸으로 쓰는 지리산 생태학'의 비전을 새롭게 구상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8일부터 7월28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10회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4일부터 13일까지 구례군매천도서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매천도서관은 구례 군민에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독서환경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5월 말까지 연장

보성군이 청년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기간이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21~28세(1994~2001년생)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비를 제외한 차액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전라남도 내 도서, 영화, 공연, 학원 수강, 여행 등 문화 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및 타 시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총무계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착한 가격업소 신규지정·재정비

곡성군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새롭게 지정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착한가격업소 16곳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은 16일까지이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 지속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지정과 재선정을 위해 군은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의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현장 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20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종량제 봉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만원 지원, 곡성군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곡성군 도시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